

반가운 소설... “올 여름 피서는 북캉스”

베스트셀러 작가 출간 잇따라
황석영 석방 20년 기념 ‘수인’
움베르토 에코 ‘제0호’ 곧 완역
이외수·김영하·베르베르 인기
새정부 출범 출판계 특수 기대

황석영, 이외수, 김영하, 베르나르베르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잇달아 소설을 펴내면서 문학출판계의 ‘여름대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두터운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발표로, 소설 판매량 또한 늘고 있으며 독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졌다. 또한 휴가철을 앞두고 ‘북캉스’를 떠나려는 독자와 이를 판매로 연계하려는 출판계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도서는 지난 5월 한달간 소설 장르 판매량이 전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소설은 95% 판매가 증가했으며 외국 소설은 110%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쟁쟁정국, 표절 논란, 몇몇 작가들의 성추문 등이 겹치면서 차분히 책을 읽을 만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어느 정도 문단의 분위기가 변모되면서 소설을 읽으려는 독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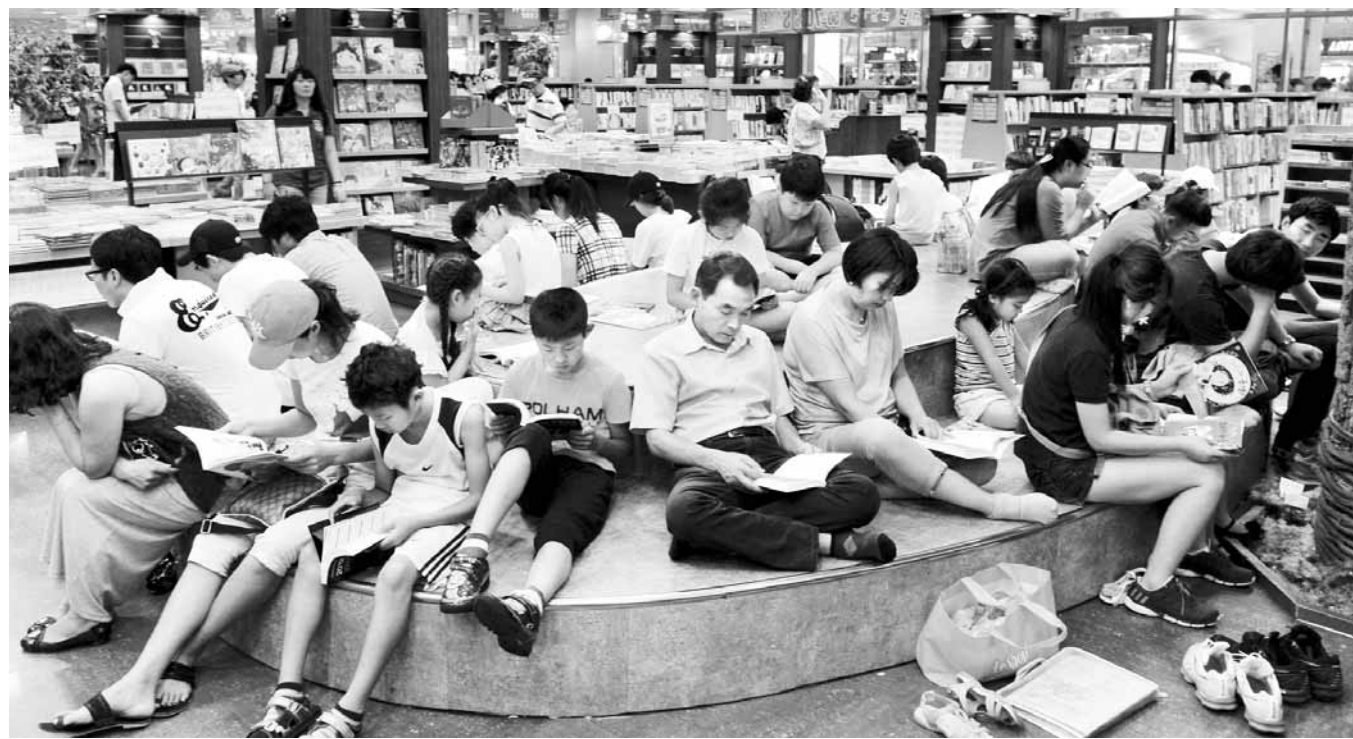
작가 황석영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파란을 겪어온 소설가다. 그가 최근 펴낸 자전적 소설 ‘수인’(2권)은 파란만장한 삶과 자유를 위해 맞서왔던 불꽃같은 여정이 담겨 있다.

올해는 작가가 5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지 20년째 되는 해다. 그는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냉전의 박물과도 같은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작가로 살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책에는 민주화 운동과 방북, 망명,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와 월남과 한국전쟁, 4·19, 베트남 전쟁, 5·18 광주항쟁을 맞이까지의 기억이 펼쳐져 있다.

올해로 문학인생 43년을 맞은 작가 이외수도 오랜만에 소설을 펴냈다. 여덟 번째 장편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2권)는 12년 만에 발표하는 야심작이다. 불합리와 부조리, 갑질이 판치는 세상을 통렬히 질타하는 내용이다. 책은 지난 2월 20일부터 카카오페이지 채널에 연재를 시작한 이후 유료와 동시에 종이책으로 출간됐다.

흥미로운 제목만큼이나 소설은 작가적 입담이 녹아 있어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작품은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서른 살 청년이 식물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악을 밝혀낸다는 것이 줄거리다.

스타일리스트 작가 김영하의 소설도 독



황석영, 이외수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잇달아 소설을 펴내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북캉스’를 떠나려는 독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영풍문고에서 독서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 <광주일보 자료>

자들의 시선을 끈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는 아무도’ 이후 7년 만에 펴낸 ‘오직 두 사람’에는 스타일리스트 김영하의 장기가 녹아 있다. 작품집에는 제9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아이를 찾습니다’, 제36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옥수수’와 ‘나’를 포함해 모두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상실 이후의 삶을 사는 이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같은 말 출간된 김애란 작가의 소설 ‘바깥은 여름’도 기대되는 작품이다. 역대 최연소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이상문학상 수상작 ‘침묵의 미래’와 젊은작가상 수상작 ‘여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포함해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외국 스타 작가들의 소설 전성도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베르나르베르, 움베르토 에코, 무라카미 하루키는 한국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들이다.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4년 만에 선보인 신작 ‘잠’(2권)은 꿈을 매개로 한 소설이다.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 ‘잠의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가가 경험한 불면증이 소설의 모티브라는 점, 모든 이와 관련된 소재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지난해 타계한 기초화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움베르토 에코의 ‘제0호’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현재 마지막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가의 마지막 장편이라는 점에서 에코의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도 곧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일

올 여름 출간된 신간 소설과 베스트셀러 작가들



황석영 '수인', 이외수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 김영하 '오직 두 사람'



움베르토 에코, 김애란, 베르나르 베르베르

본에서 발간된 소설은 아내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화가가 겪는 내면의 상처를 그려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올 여름 소설 시장은 당분간 활기가 돌 전망이다. 진영균 교보문고 홍보 담당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신작 발간은 방학과 휴가철이라는 여름시장과 맞물린 측면이 있다”면서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출판을 미루려는 움직임이 다소 있었지만, 지금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계절적 측면이 있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ju.co.kr

송경동 시인, 미당문학상 후보 거부

“천일·신군부 부역 이유”

송경동(사진) 시인이 서정주 시인(1915~2000)을 기리는 미당문학상 후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송 시인은 2일 페이스북에 “2017 미당문학상 후보’로 올리기 한다고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다”며 “3000만 원짜리 문학상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거부했다”고 적었다.

그는 “미당의 시적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천일 부역과 518 광주학살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군부정권에 부역했던 이를 도리어 기리는 상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말미에라도 내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시인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부정이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왔고, 살아가는 벗들을 부정하는 것이며, 식민지와 독재로 점철된 긴



한국의 역사 그 시기 동안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해 싸우다 수없이 죽어 가고, 끌려가고, 짓밟힌 무수한 이들의 아픔과 고통 그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2001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한 송 시인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대표적 참여 시인이다. 지난해에 발표한 시를 통해 ‘희망버스’에 항의하는 표시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텐트촌 ‘촌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올해 5월 5·18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던 김혜순 시인이 수상을 사양하는 등 천일 문인들의 이름을 내건 문학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문단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누벨바그 거장 에릭 로메르 회고전

<녹색 광선>

광주극장 6~12일

광주극장은 사소한 일상을 통해 인간 내면을 들여다본 프랑스 누벨바그 거장 에릭 로메르(Eric Rohmer)감독의 회고전이 6~12일까지 연다.

에릭 로메르는 장 콥다르, 프랑수아 트뤼포 등과 함께 ‘영화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라 불리는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ema)의 초창기를 이끈 주역이자 누벨바그를 일군 프랑스의 작가주의 감독이다. 아흔에 가까운 나이까지 영화에 대

한 열정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고유한 세계를 구축한 거장의 작품세계를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회고전에선 ‘녹색 광선’, ‘해변의 폴린’, ‘가을 이야기’ 등 에릭 로메르 대표작 10편이 상영된다.

또한 로메르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이수원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의 강연(8일 오후 3시20분)도 마련된다. 상영작 소개 및 시간표 광주극장 블로그 (cafe.naver.com/cinemas-wangju) 확인.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이벤트 참가 업체 모집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여행·체험 상품을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로 찾아가자’ 프로그램에 참가할 운영업체 및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다. 1인당 6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로 이벤트’ 프로그램

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전시 등을 할인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로 관람하자’ ▲저렴한 금액으로 알찬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로 찾아가자’ ▲거동이 불편한 수혜자를 직접 방문해서 공연 및 문화체험 등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문화누리카드로 초대하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재단은 제안된 문화상품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912~13. /박성천기자 skypark@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